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한 원로음악교육자의 시각

- 이홍수 명예교수와의 대화를 중심으로 -

A Senior Music Educator's Perspective on the Development of the 2022 Revised Music Curriculum: Focused on the Interview with Emeritus Professor Hong-soo Lee

김기수*

Gi-Su Kim

초록 지금 우리의 음악교육은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발과정 중에 있다. 이 교육과정의 개발은 앞으로의 음악과 교육의 목적 및 목표, 내용과 방법, 평가 등의 방향과 척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때 더욱 요구되는 것이 지난날 교육과정의 성찰과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음악 교육적 해안이다. 이홍수 명예교수는 한국음악교육을 대표하는 원로학자로서 우리나라 음악 교육발전과 함께해 온 역사적 산증인이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음악과 교육과정의 체계, 내용 및 방법 등을 들어보았다. 특히, 이홍수 교수는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은 교과 교육의 본질화, 현대화, 체계화, 정교화의 과정이다’라고 역설하였다. 이는 현행 개발 중인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뿐 아니라, 바람직한 미래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위한 하나의 지계석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제어: 이홍수,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과정, 음악교육

Abstract Currently, our music education i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2022 Revised Music Curriculum. Developing this curriculum is an important issue that determines the direction and scale of future music and education goals, content and method, and evaluation. What is more required at this time is the reflection of the past curriculum and the musical educational insight that can prepare for the future society. Emeritus Professor Ph. D. Lee Hong-soo is an honorary professor representing Korean music education and is a living witness who has been with the development of music education in Korea. Through his conversation, I listened to the system, content, and method of the desirable music and curriculum. In particular, Professor Lee Hong-soo emphasized that 'the revision of the music curriculum is a process of intrinsicalization, modernization, systematization, and elaboration of subject education.' It will serve as a grounding stone for the desirable future music and curriculum and the 2022 revised music curriculum currently being developed.

Key words: Hong-soo Lee, the 2022 revised music curriculum, curriculum, music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E-mail: gisu1027@cue.ac.kr

Professor, Ch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3, Jinyangho-ro 369beon-gil, Jinju-si, Gyeongsangnam-do, Korea

I. 들어가는 말

일찍이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였다. 교육의 중요성을 이르는 말이다. 사람의 됴됨이를 가르치고,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학교 교육이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소위 국민 기본 교육이라 일컫는다. 이러한 국민 기본 교육의 방향과 내용 및 방법의 지침이 되는 것이 교육과정이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은 1946년 교수 요목 시기와 1955년 제1차 교육과정에서 출발하여 현행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2022년 12월쯤에는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 공포될 예정이다.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 차기 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는 많은 분쟁과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학자와 교육학자 간의 학문적 견해의 대립, 교육학자와 현장교사와의 교육 관점의 대립, 이론과 실제와 갈등, 국악과 양악의 갈등 등이 그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은 어떤 한 시기의 교육지침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교육자와 단체 간의 많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분명, 그 조율을 하는 가운데 많은 논쟁과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만큼, 이럴 때 더욱 필요한 것이 교육적 안목과 혜안을 가진 사람의 권고 또는 조언이라 할 것이다. 즉 지난날의 많은 교육과정의 경험을 가진 자로서 정작 학교 교육에서 기본적으로 길러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을 기르기 위해 음악과 교육의 방향과 목적, 내용과 방법 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의 시각(視覺)이다. 이는 비록 내일의 길이 어제의 길과 똑같지는 않지만, 어제에 걸어온 길은 내일에 나갈 길의 지계석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흥수 명예교수는 초·중등·대학교의 교육자로서의 현장교육의 경험, 교육학자로서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편찬의 학술활동, 그리고 국제 학술활동 및 참여를 통해 습득한 세계화의 시각을 겸비한 우리나라 원로음악교육학자이다. 그야말로 그는 우리나라 음악교육계의 거목(巨木)이다. 그런 만큼, 음악교육의 방향과 목표, 내용과 방법 등을 결정하는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그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그리고 교육과정의 역사적 경험의 시각은 충분히 하나의 자양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가늠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람직한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해 원로학자 이흥수 교수가 바라보는 시각을 대담을 통해 전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 작업뿐 아니라, 국가 수준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이해와 발전을 위해서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¹⁾

1. 학령기의 감성과 음악(예술) 경험의 관계

학교가 예술 경험을 학령기에 충실하게 가지게 해야 하는 까닭은 그 시기가 일생 중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때이고, 그 기간에 감성과 오성의 성장발달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간의 예술 향유의 바탕은 감각과 기능, 수용력과 표현력, 상상력과 창의력, 미적 정서와 함축의 논리, 선의지와 인류애 등이 그 시기에 제공되는 연속적 경험을 통해 갖추어진다(Lee, 1990).

루소(Rousseau, 2009)는 어린이 성장기에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온전한 성장에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8세 어린이에게는 오감의 발달에 적합한 신체적 경험을 제공하여 신체와 감각기관들을 단련시킴으로써 감각적 수용 능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 9~10세에는 감각적 대상과 자연현상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며, 호기심을 자극하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 11~12세에는 시를 암송하고 책을 많이 읽으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좋은 음악을 자주 감상하게 해야 한다. 다양한 문학 작품과 음악 작품을 통해 온갖 종류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애정과 취향을 가지게 해야 한다. 12~15세에는 이미지와 느낌, 논리적 사고를 통해 관념을 이해하도록 돕고, 감성과 오성의 협응으로 공부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성이 갖추어지기 전에 경험으로부터 주로 수용하는 것은 경험과 대상의 관념이 아니라 이미지이다. 이미지는 감각적인 대상의 그림이며, 관념은 관련되는 것들에 의해 정의 내려진 대상의 개념이다. 논리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정한 기억을 가지기 어렵다. 소리와 형체를 귀와 눈, 손의 감각으로 포착해도 관념을 이해하기는 어려우며, 관념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 그래서 지식이 오성에 이르지 못한 채로 감각 속에 있다면, 그 지식이나 기억은 완전하지 않다. 감성은 지적 이성의 토대이다. 오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감각기관을 통하므로 최초의 이성은 감각적 이성이며, 그것이 지적 이성의 토대가 된다. 공부는 그러한 감각적 이성과 논리적 사고의 협동작용으로 이루어진다(Lee, 2006). 그래서 감성을 통해 받아들인 이미지와 느낌을 바탕으로, 공부할 현상, 대상, 요소, 내용을 비교하고 탐색, 탐구하면서 그들 속에서 관련짓고 관계를 찾으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제대로 된, 오성을 통한 공부이다. 그렇게 감성과 오성으로 스스로

1) 이 장은 이후 이홍수 교수의 대답 논제가 되는 만큼, 그의 학문적·교육적 신념이 담긴 저작물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느끼고 탐색하면서 생각하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책으로 대용하게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이성을 그대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하면 많은 것을 믿게 할 수는 있으나 어느 것도 알게 하지 못한다. 15~20세에는 감수성을 밖으로 향하게 하여 ‘선과 정의와 미에 대한 사랑’을 지니게 해야 하며, 그와 더불어 인간애를 갖추게 함으로써 타인과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기에 필수불가결한 이러한 경험과 공부는 모든 과목에서 할 수 있지만, 특히 감성과 오성을 충동원하는 가운데 예술작품이 담고 있는 ‘느낌 - 생각 - 상상 세계’의 유기적 의미와 함축된 관련성 및 관계성을 탐구하면서 경험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오랜 교육 역사 속에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예술작품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정신을 높이고 삶의 의미와 행복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감성과 오성을 성장시키는 가운데 내면의 기본을 갖추게 하며 정신을 높이는 일은 빠르게, 쉽사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뚜렷하게 인지되지 않고 쉽게 축적되지도 않는다. 오랜 기간에 걸친 꾸준한 노력을 통해 조금씩 축적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래서 음악과는 성장기 전체에 걸쳐 천천히, 조금씩 장기간의 연계적 과정을 거치며 청소년기 끝 무렵까지 이어가는 감성의 교과, 오성의 교과, 품성의 교과인 것이다.

2. ‘유기적 의미와 미적 실체’ 공유를 위한 음악교육

예술 경험에서는 작품의 의미와 미적 실체를 체험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예술 활동은 무엇보다 학생이 작품의 유기적 의미와 미적 질을 포착하고 소통하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화가 로스코(Mark Rothco, 1903~1970)는 “형태를 지닌 모든 것은 의미로 의식될 수 있는 유기적 실체이다”라고 말한다. 모든 예술작품은, 유기적인 것으로 의식하고자 하면, 의미를 지닌 실체로 파악될 수 있다. 사실, 예술 경험에서 작품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소통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러나 교육현장에는 행위에 주목하느라 의미를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으며, 그것은 예술교육의 성공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Lee, 2015). 따라서 음악교육은 학생에게 음악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이해하며 소통하도록 이끌고, 동시에 작품의 생성원리를 탐구하도록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음악적 의미와 미적 질의 이해와 소통을 위해 그에 합당한 경험과 학습을 제공해야 한다. 그것을 위한 체계적인 지침이 바로 교육과정이다.

음악의 의미는 음악 작품을 생성하는 질료와 그것의 속성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생성된다. 음악 작품의 질료는 소리이고, 길이와 높이, 크기, 음색 등의 속성을 가진다.

작곡은 질료의 속성들을 이용하여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생시키는 일이다. 다양한 속성을 지닌 음들을 자신의 의도(느낌과 생각, 상상)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연결하고 배합함으로써 음향 의미 체를 창출하게 된다(Lee, 1992a). 그래서 음악 작품은 음향을 이미지로 느끼도록 만드는 (musical image painting) 관련성 의미의 음악(성악곡과 표제기악곡)과 음향을 순수하게 구조화하는 (musical structuring) 관계성 의미의 음악(순음악곡)으로 생성된다. 그렇게 창출된 음향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사한 느낌과 생각, 상상을 일으키므로 의미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표현의 적절성과 탁월함이 뛰어날수록 우수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음악의 미적 질은 소리를 엮는 방식, 즉 작곡 의도에 따른 작품 성격에 알맞은 형태와 양식으로 음향을 구성함으로써 생성된다. 음악 작품의 형식은 인간의 본성을 근거로 하여 구조화되고, 본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로 창출된다. 작품이 외적 관련성 악곡이든 내적 관계성 악곡이든 ‘질서와 자유의 조화’를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기는 보편적인 미적 감성의 범주 속에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악곡은 음의 ‘반복과 변화’를 통해 ‘같은 음형의 반복이나 비슷한 음형의 연결, 다른 음형의 연결’을 이루게 하고, ‘주제의 전개와 일탈, 변주’ 등을 통해 미적 질을 생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향 패턴의 연결과 배합의 의도에 주목하면서 작곡자의 음악적 상념 (image & structure)을 기억하고 예측함으로써 유기적 의미와 미적 질을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표현의 적절성과 탁월함과 함께 미적 질이 높을수록 우수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Lee, 1992b).

그런 만큼, 음악의 의미와 미적 질은 인간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 근거한 소재 및 내용과 그에 따른 창의적인 느낌과 생각과 상상을 통해 생성된다. 예술은 삶에 관한 사유이고 이상을 위한 담론인 까닭에 예술작품에서 다루는 내용은 대체로 실재를 반영하되 그것을 초월하는 이데아의 세계이다. 음악 작품은 작곡가가 특정한 시대와 지역의 삶과 정서를 배경으로 느낌과 생각과 상상한 바를 음향에 담아 연결하고 배합함으로써 의미와 미적 질을 지닌 음향으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삶의 모습을 근거로 음향의 유기적 의미와 아름다움을 포착하고자 노력하면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게 된다.

3. 예술 음악 경험: 의미와 미적 질의 수용 및 표현

음악과는 교과의 본질적 당위를 구현하고 시대적, 사회적 소임을 실현해야 한다. 교과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음악 경험 특유의 빛이 바래져 아름다운 교감과 감동적인 울림, 깊은 내면작용을 잃게 된다. 음악 교과가 제 소임을 저버리

면 음악 활동과 수업은 음악의 원리를 터득하지 못한 채 재미와 자극, 감각과 격렬함 속에 그저 즐겁고 신나게,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오락시간으로 변질되기 쉽다. 학교 음악 활동과 수업이 그렇게 되면 가정과 사회의 문화는 연예 오락화의 길로 질주하게 된다. 그런 학교 교육과 사회 문화는 결국 학생들의 정서를 피폐하게 하며, 사람들의 정신을 쇠락하고 퇴보하게 만든다. 그래서 모든 음악 활동은 ‘예술 음악 작품의 의미와 미적 질을 공유하는 경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Lee, 2004). 사람에게 선의지와 정의, 아름다운 열망을 형성하고 발휘하게 하는 힘은 좋은 느낌과 바른 생각을 일으키는 개인의 내면에서 만들어진다. 그런데 평범한 삶에서는 좋은 느낌, 바른 생각을 자주 접하기가 쉽지 않아서 일상생활에서는 아름답고 힘 있는 내면을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특별히 예술 음악의 경험이 필요하다. 음악 중에도 예술 음악을 강조하는 까닭은, 예술 음악이 ‘가치와 의미와 아름다움의 통합체’로서 그 모두를 ‘동시에 하나로 경험하는’ 유일한 영역이며, 예술 음악만큼 ‘지고 지선(至高 至善)’의 완전한 상태를 최상으로 감동하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Lee, 2006). 그것은 경험하는 사람만이 가지는 내면의 감격스러운 떨림이며 완전한 충족감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술 음악으로부터 최상의 미적 전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학교가 그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음악 경험에서 ‘악곡 내용과 감정 이입’ 상태는 성패를 좌우한다. 그래서 음악 활동이나 수업의 도입부에 학생이 악곡의 내용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내 삶 속의 것’이라고 느끼게 해야 한다. 악곡 내용을 학생의 경험과 관련지음으로써 ‘자신에게 중요해서 소통하고 싶은 자신의 의미’로 수용하게 해야 한다. 교사의 발문에 따라 악곡은 의미 있는 ‘내 노래’가 되기도 하고 ‘타인의 노래’가 되기도 한다(Lee, 1992a).

음악 표현에서는 음악적 의미를 소통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소통하고자 하는 감성을 발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악곡으로부터 학생의 경험을 연상하거나 상상하면서 자신의 느낌을 불러낼 수 있어야 한다. 교재 악곡이 ‘타인의 것’이라면 학생이 그것을 애써 배우고 정성껏 표현해야 할 까닭이 없을 터이다. 누가 만든 악곡이든 학생이 그것을 표현하는 주체여야 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의미를 의식해야 하며, 그 의미에 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 연상/상상이 표현 행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교사가 ‘잘 하는지’에만 주목하면, 의미의 공감과 소통은 사라지고, 학생은 교사의 요구대로 정확하게 소리를 내는 데에 집중하게 된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소통 경험이 되풀이되면 점차 자신의 의도를 잘 표현하게 되므로 교사는 학생의 자기표현을 진심으로 격려해야 한다(Lee, 2015).

음악 감상에서는 악곡의 의미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느낌과 심상을 창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이 악곡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관련짓는 가운데 느끼고

생각하고 연상/상상하면서 의미와 심상으로 수용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러한 경험 이 반복되면 점차 수준 높은 악곡의 함축적 의미와 아름다움을 공감할 수 있게 되므로 학생의 수용 경험과 느낌을 악곡 자체의 의미만큼 중히 여겨야 한다. 그런 만큼, 교사는 학생을 ‘음악을 들을 줄 아는 사람’으로 길러야 한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귀와 가슴으로 음악을 듣는 사람이다. 연주되는 실제 음악은 듣는 사람의 귀에 떨어뜨려 남고, 가슴에 심상으로 새겨짐으로써 완성된다. 감상은 예술작품을 분별하여 가치와 효용을 깊이 음미하고 이해하는 일로, 미적 가치의 인지를 뜻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홍수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원로음악교육학자이다. 그는 1944년에 출생하여 강릉사범학교를 졸업해서 2009년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정년 퇴임을 하기까지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의 학교 현장의 교육자로서 강단에 섰었다. 그리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과 관련해서는 1973년 당시 교육부 음악과 편수관이었던 정세문 선생님과 함께 제3차, 제4차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의 편찬과 심의 등의 일을 했다. 1987년 귀국 후 제6차, 제7차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했었고, 초중등 음악 교과서 심의와 편찬을 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음악과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다. 그리고 학술활동으로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음악교육학회 학회장을 역임하며 음악교육의 이론적, 실제적 발전을 위해 일하였다. 1992년부터 94, 96, 98년 등 수차례 국제음악교육자대회(ISME)에 참가하였고, 1997년 아시아 태평양음악교육연구대회(APSMER) 창설을 주도하고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 음악교육자들과 일본, 홍콩, 호주, 캐나다의 음악교육자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도모하였다.

2. 연구 절차

1) 사전 준비

이홍수 교수와의 대담을 위해 우선 직접 만남을 통해 대담의 취지와 내용을 알렸다. 그 취지는 현재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는 즈음에서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이흥수 교수의 견해를 들어보자는 것이었다. 내용은 그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본 대담을 위해 연구자는 2022년 2월 17일 이흥수 교수에게 질문지를 메일로 전달하였고, 본 대담까지 대담의 내용과 시간 및 장소와 관련하여 몇 차례 전화 통화를 하였다.

2) 대담 질문지

다음은 대담(3월 24일) 전에 2022년 2월 17일에 메일로 보낸 질문지 내용이다.

1.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지난 교육과정 발전에서 크게 아쉬워하는 부분과 성찰해야 할 부분은?
3.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가장 강조되거나 부각 되어야 할 점은?
4.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구성은 어떻게 조직되어야겠습니까?
5.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적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어떻게 진술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7.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영역(지난 교육과정: 표현, 감상, 생활화)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바람직할까요?
8.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음악 요소 및 개념)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할까요?
9. 성취기준 및 평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0.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 대담 진행

대담은 3월 24일 오후 성남시 미금에 위치한 이흥수 교수 개인연구소에서 이루어졌다. 대담 형식은 직접 대면의 1대1의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졌다. 질문지에 기초하였지만, 대담의 전체적 흐름은 주로 이흥수 교수가 준비한 내용을 전달하는 강의식으로 진행되었다. 대담은 특별한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차를 마시면서 약 2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IV. 연구 결과

1. 음악 교과의 목표 설정

1) 음악과 교육과정 발전 과정과 음악 교과의 목표 설정

이흥수 교수는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 발전의 시기별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 교수 요목 시기(1946~1954): 교수 내용의 주제, 제목 중심
- 제1차 교육과정(1954~1963): 교과 중심 교육과정
- 제2차 교육과정(1963~1973): 생활 중심 교육과정- 경험하는 학습활동 중시, 국민적 교양
- 제3차 교육과정(1973~1981): 학문 중심 교육과정- 지식의 구조, 기본 개념 원리 중시, 조화로운 인격
- 제4차 교육과정(1981~1987): 교과 · 경험 · 학문 교육 사조 균형 교육과정- 심미성 중시, 조화로운 인격
- 제5차 교육과정(1987~1992): 경험 · 학문 통합 교육과정-창조성 중시, 조화로운 인격
- 제6차 교육과정(1992~1997): 분권 · 다양 · 적정 · 효율화 강조- 국가/지역 역할 분담, 학교 재량시간 신설, 자아실현
- 제7차 교육과정(1997~2007): 학생 중심 교육과정- 국민 공통기본과정, 자율성-창의성 중시, 전인적 인간
- 2007 개정 교육과정(2007~2011): 경험 · 심미 교육 사조 통합 교육과정, ‘생활화’ 영역 첨가, 본질추구-현대화
- 2011 개정 교육과정(2011~2015): 수시/부분개정, 공통(초/중)-선택(고)형, 예술(음악/미술), 전인적 성장, 창의적 인재
- 2015 개정 교육과정(2015~2022): 현행, 역량 배양 중시

위에서처럼,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은 ‘교수 요목 시기 및 제1차 교과 중심 교육과정 시기’부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다양한 변화를 거치면서 점차 음악과의 본질적 당위에 합당한 방향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11년 개정 시기부터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수시 및 일부 개정’이라는 명분으로 ‘교육과정 총론’이 제시하는 방향과 지침에 따라 단기간의 개정 작업이 진행됨으로써 ‘교과 목표의 설정과 내용 체제 구성’의 면에서 이전의 교육과정보다 더 발전된 수준의 ‘본질추구와 구조화, 명료화, 정교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흥수 교수는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총론의 지침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능력 신장, 자아정체성 형성, 인재/시민 육성, 문화발전 기여’ 등에 중점을 둬으로써 음악과의 본질적 당위 및 소임과는 동떨어진 음악 외적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전체 교과가 총력을 다 해도 달성하기 어려우며 역지사러운 ‘역량 배양’이라는 총괄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음악과 고유의 학교 급별 목표 설정과 지도 내용 및 방법 선택에 있어 여러 면의 한계와 어려움에 부딪히도록 자초했다고 평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역량들과 자아 형성, 인재육성, 문화발전기여 등의 내용은 총론의 전반적인 교육목적 항에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각 교과는 교과 특유의 총괄목표와 학교 급별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흥수 교수는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총괄목표는 ‘음악적 감성 배양, 음악 수용력 및 표현력 배양, 음악 생성과 소통의 원리 이해, 음악의 의미 및 미적 질의 소통과 공유, 행복을 누릴 내면 형성, 인간적 품성 배양’과 같은 개인의 ‘온전한 성장발달과 전인적 인간의 육성’을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음악 특유의 힘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서적, 지적, 정신적 내면의 성장양상과 기능습득 및 능력의 발달과정에 초점을 두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 학교 급별 교육목표

이흥수 교수는 음악교육에서 중심이 되는 ‘활동(경험)요소 및 학습요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위계 및 연계성, 지속성 및 점진적 과정상의 구조적인 체계를 <Table 1>과 같이 제안한다.

<Table 1> Educational goals by school level

School	Educational objectives
Primary school	Develop a sense of pitch, understand the components of music, learn the basic skills of music (reading sheet music, basic skills of classroom instruments), feel and think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music, express, create, appreciate, work together, understand the inner characteristics of people through music
Middle school	Develop musical emotions, understand musical components and principles, feel and think the meaning and context of music, express, create, appreciate, work together,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people and the times through music, and understand the role of music
High school	Develop musical aesthetic sensibility, understand the principle of music creation, feel and think the meaning and context of music, express, create, appreciate, work together,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imes and society through music, understand the value of music, preserve music culture and traditions in life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이흥수 교수는 음악 교과의 성격을 ‘음악과의 본질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서, 그 목표는 ‘감성의 함양과 음악적 기본 능력의 배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만큼, 음악과에서는 과도하고 허구적인 표현인 ‘역량’이라는 어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음악과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발휘할 역량’을 배양할 것이 아니라 교육자 스스로 ‘음악적 감성과 기본 능력을 배양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그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음악과 역량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첫째,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역량 관련 제시어들은 대체로 과대 포장된 의미로 제시되어 있으며, 너무 포괄적이고 의미가 모호하며, 음악교육과 관련되는 실질적인 측면과 양상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문화적 공동체 역량, 자기관리 역량 등이다. 둘째, ‘역량’이라는 어휘를 신중히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컨대, ‘음악적 감성’은 그 자체가 역량을 뜻하므로 ‘음악적 감성역량’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며, ‘역량’이라는 어휘는 그 자체로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과 중압감을 느끼게 하므로 그 의미를 문장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셋째, 총론에 제시된 ‘역량’ 관련 내용 중 음악과에 합당한 내용을 선택하고, 변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음악과는 평생의 삶 속에서 펼칠 음악 활동에 필요한 기본과 기초를 갖추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하므로 역량이라는 어휘에 현혹되어 지도할 기능과 능력의 범위와 수준을 과대 확장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자기 주도성’, ‘음악적 창의성’, ‘음악적 산출물’과 같은 어휘들은 모호하고 억지스러운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되므로 자연스럽게 명료한 서술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내용 체계

1) 내용 체계 구분

이흥수 교수는 음악과의 내용 영역은 ‘표현, 창작, 감상’으로 구분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말하며,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제시하는데, 이는 음악교육의 본질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첫째, ‘생활화’는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일에서부터 내용을 선정하고 방법을 선택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합당하지 않은 면이 많았고, 음악교육자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로 무리하게 제시되어왔다.

둘째, 내용 체계 표 양식의 학년(군)별 학습 내용 ‘범주’ 항의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중에서 ‘과정, 기능’을 ‘활동, 기능’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다.

셋째, 음악과는 ‘음악 활동(표현, 창작, 감상) 및 학습(개념이해, 기능습득)’으로 성립되며, 지식의 이해와 기능습득, 감성 배양 및 태도 형성도 모두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과정 기능’보다 ‘활동 기능’이 적절하다.

넷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표는 ‘음악의 학문적 체계’의 시각에서 볼 때, 핵심개념 및 지식 내용의 선정에 합당하지 않은 면이 많으며, 학습의 연속적 과정과 내용 영역 간 연계의 측면에서 볼 때 내용 요소와 기능, 요소 및 개념 체계 등의 선정 및 구성에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기능’ 항은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평가되며 편협한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런 만큼, 이흥수 교수의 시각에서 음악과의 내용 체계는 ‘내용(활동 및 학습) 체계’라는 이름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내용(활동 및 학습) 체계’에는 내용을 활동요소(악곡, 표현/창작/감상)와 학습요소(개념이해, 기능습득)로 구분하고, 영역별 활동요소(표현, 창작, 감상)와 학습요소(개념, 기능)를 단계별(상위 요소부터 하위/상세 요소까지)로 추출한 다음, 각 요소의 위계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학교 및 학년(군) 별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활동요소(악곡, 표현, 창작, 감상): 악곡 경험요소(내용, 소통)와 행위 경험요소(내면작용, 외적 행위)
- 악곡 경험: 악곡 내용(의미, 맥락, 미적 질)을 소통하기(표현, 창작, 감상)
- 행위 경험: 내면작용(느낌, 생각, 상상, 수용, 통찰, 판단)과 외적 행위(모방, 표현, 창작)로 음악 실행하기

- 학습요소(개념이해/기능습득)
- 기본 능력: 음감 익히기, 음악에 반응하기(움직임), 악보 읽기 · 쓰기
- 기초 기능: 교실 악기 익히기
- 음악 구성 요소: 음악의 구성 요소 및 원리 이해하기
- 표현: 노래 부르기, 악기연주 방법 이해 · 습득하기
- 창작: 음악 창작 방법 이해 · 습득하기
- 수용비평: 음악 감상 방법 이해 · 습득하기

2) 내용 체계표 예시

이흥수 교수는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표 예시를 <Table 2>와 같이 제안하는데, 여기서는 활동요소(악곡, 표현, 창작, 감상)와 학습요소(개념이해/기능습득)가 ‘나선행’ 교육과정의 특징과 ‘음악하기’의 음악교육 철학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가늠된다.

<Table 2> Example of a content(activity and learning) scheme

School year Area	3rd to 4th grade	5th to 6th grade
Expression	• Singing different kinds of songs (traditional children's songs, folk songs, spinning songs, other countries' songs, etc.) • Solfege while looking at the sheet music (melody in C major) • Unison and two part choir, unison and two part choir • Playing various kinds of rhythmic instruments • Playing melodic instruments (keyboard, recorder) • Doing an ensemble	• Singing different kinds of songs (traditional children's songs, folk songs, rounds, other countries' songs, etc.) • Solfege while looking at the sheet music (melody in C, F, G major and A minor) • Singing two, three-part chorus • Singing in chorus to the tune of command • Playing different types of musical instruments • Doing an ensemble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
Creativity	• Making a Simple Rhythm • Doing impromptu expression of a simple poem with a song • Expressing the sounds and images of people around you with instruments	• Making a simple song • Expressing a simple story with music • Making and expressing music that fits the scene
Appreciation	• Reacting to music with body movements • Listening to various types of music (vocal, march, dance, descriptive, program music, pure music, etc.) • Listening and feeling the characteristics of a piece of music • Talking about feelings of a piece of music	• Reacting to music with body movements • Listening to different kinds of music (pansori, opera, event music, program music, pure music, etc.) • Feeling, thinking, and listening the content of a piece of music • Talking about feelings of a piece of music

<Table 2> Continued

School year Area	Middle school	High school
Expression	• Singing various kinds of songs • Singing ensemble, two-part chorus • Singing with proper breathing • Playing various types of melodic instruments • Doing chamber music and an ensemble • Playing with the right method	• Singing various kinds of songs • Singing vocal ensemble, choir of various voices • Singing with proper voice • Playing various types of melodic instruments • Doing a duet and an ensemble in various combinations • Foundation of singing/playing
Creativity	• Doing impromptu expression with voice and instrument • Creating simple forms of song, instrumental music • Reorganizing music using a variety of media	• Doing impromptu expression with voice and instrument • Creating song and instrumental music in various forms • Expressing music using a variety of media
Appreciation	• Listening to music of various kinds and media • Listening while understanding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various people and times • Listening while thinking about the meaning and context of a piece of music • Understanding the role of Music	• Listening to music of various kinds and media • Listening while understanding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various times and societies • Listening while grasping the structural form of a piece of music • Listening while criticizing the quality of music and performance • Recognizing the value of Music

3) 지도 내용의 균형

음악과는 성장기 학생들의 감성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끼치는 교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3~15년 동안 계속 이수하지만, 배당 수업 시수는 매우 적은 교과이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에 교과의 기본적인 소임을 수행하기 위해 학년에 따라 세계공통의 예술 음악과 우리 전통음악에서 시작하여 다문화 음악, 대중음악 등을 기본의 지도에서 시작하여 점차 형태와 범주를 다양화하고 확장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흥수 교수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반영될 음악의 비율을 <Table 3>과 같이 제한한다.

<Table 3> The proportion of music genres by school level

School	Ratio
Primary school	Focus on universal art (classic) music (55%) and traditional (authentic) Korean music(30%), Add multicultural music (15%)
Middle school	Focus on universal art (classic) music (50%) and traditional (authentic) Korean music (30%), Add multicultural music (15%) and popular music (5%)
High school	Focus on universal art (classic) music (45%) and traditional (authentic) Korean music (30%), Add multicultural music (15%) and popular music (10%)

사실, 오늘날 음악의 시대와 장르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교육에 필요한 곡의 성격 및 내용상의 적절성에 대해서만은 고려하되 다른 이유로 그것을 구별하는 태도에서는 벗어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학년 수준에 따라 ‘주어진 개념과 원리를 경험하고 학습하게 하는 데’에 필요하다면, ‘한국음악(5), 외국 음악(4), 대중음악(1)’ 등으로만 구분하고 그러한 범위 안에서 어느 시대, 어느 장르의 악곡이라도 교과서 저자와 교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을 이홍수 교수는 권고한다. 그러나 개정 후 교과서편찬 과정에서 나타날 여러 상황(갈등이나 마찰)을 고려하여 음악을 구분하고 배분해야 할 것이다.

3. 음악 요소 체계표

1) ‘음악 요소 체계표’제시 방법

이홍수 교수는 ‘음악 요소’라는 용어가 너무나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라는 용어도 합당한 어휘 구성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각 어휘의 뜻’과 연결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음악 요소’란 무슨 뜻인가이다. ‘음악을 이루는 요소들, 즉 악곡 구성 요소와 음악 활동요소와 음악 학습요소 등의 모든 요소’를 뜻하는지, 아니면 ‘악곡을 구성하는 요소’, 즉 ‘악곡 구성 요소’를 뜻하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란 어떤 뜻인가이다. ‘요소’와 ‘개념’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음악교육에서 학습의 중점은 음악 활동(경험)을 통해 음악의 구성 요소 및 생성원리를 개념 형태로 이해, 터득하고, 그렇게 획득한 ‘요소 및 원리’를 음악 활동에 적용하는 데에 있다고 보면,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표 개선의 필요성

이홍수 교수는 2015 교육과정의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 표’는 제목 자체에 논리성이 부족하며, 제시된 요소들이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게 선정된 경우와 위계 및 연계성의 면에서 정교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다.

(1)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표

‘음악 요소’는 무엇이고 ‘요소와 개념’은 각각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이 음악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인지, 아니면 악곡 구성 요소를 뜻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요소와 개념을 분리해 생각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도 명백하지 않다. 체계표의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합당한 내용을 선정하고 적절하게 구조화할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새 교육과정에서는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표’를 ‘음악 요소 및 원리 체계표’ 또는 ‘음악 요소(원리) 체계표’로 변경하여 제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둘째, 음악과의 ‘음악 요소 이해’는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와 원리’를 ‘개념 형태’로 이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셋째, ‘음악 요소 및 원리 체계 표’에는 학습요소 중 ‘음악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과 원리’를 선정, 제시해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3, 4학년의 계이름으로 부르기 학습, 5, 6학년의 합창(중창), 합주(중주) 활동,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창작 활동을 특히 강화하도록 제시해야 한다.

<Table 4> Table of musical elements and Conceptual system

School year Area	3rd to 4th grade	5th to 6th grade	Middle school	High school
Rhythm	• Composition of the beat • Basic Jangdan • Rhythmic figure	• Relationship between beat and rhythm • Deformed Jangdan • Connection of rhythm	• Various types of beats and rhythms • Various types of Jangdans and rhythms	• Various types of beats and rhythms • Various types of Jangdans and rhythms
Pitch	• Scale(C major) and scale name • Shape of a melody	• Various scales • Conjunction of melody	• Various types of scales and melodies	• Various types of scales and melodies
Harmony	• Relationship between melody and harmony	• Composition of the main trichord	• Main trichord and dominant chord • Basic connection of the ending chord	• Three chords of varying keys and dominant chord • Chord progression
Form	• Repetition of rhythmic patterns • Repetition of Melodic repetition	• Repetition and change of melodic patterns • Basic form of a piece of music • Development of a piece of music	• Variety of musical forms • Development and variation of a piece of music • Style of music of the times	• Form and structure of various of music • Change and development in the Form of Music • Form and style according to culture
Dynamics	• Dynamics of a piece of music (loud and small)	• Change of dynamics (loud and small) of a piece of music (louder and louder-smaller and smaller)	• Dynamics according to the content and development of a piece of music (loud and small)	•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of music and the change in dynamics (loud and small)
Tempo	• Tempo of a piece of music	• Change in tempo of a piece of music (faster and faster • slowly and slowly)	• Tempo according to the content and development of a piece of music	• Relationship between development of music and tempo change
Tone color	• Difference in tone according to the sound source(sound of the surroundings, of people and instruments)	• Difference in expression according to tone color	• Difference in expression according to the range of tone • Difference in expression according to the tone quality	• Difference in expression according to singing techniques • Difference in expression according to the playing techniques

4.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이흥수 교수는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와 관련하여 학년에 따른 기능과 활동을 <Table 5>와 같이 제안한다.

<Table 5> Skills and activities by grade

Function	School year	Activity
Musical sense	Primary 1st to 3rd grade	Distinguish ‘same – different’ in ‘the length, pitch, color of tone’
Basic skills	Primary 1st to 2nd grade	Beat/beating with rhythm instruments, playing tunes and percussion instruments
	Primary 3rd to 4th grade	Playing keyboard instruments, recorder, danso
Reading and writing music	Primary 3rd to 4th grade	Solfege a score by keyboard/recorder
Doing chorus and ensemble	Primary 5th to 6th grade~Middle and high school	Vocal ensemble, chorus, quartet, ensemble

이흥수 교수가 제안하는 <Table 5>는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첫째, ‘음 감각과 기능’의 지도에는 학습 시기와 절차 및 과정, 반복의 효과 등을 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음악 구성원리와 음악 실행방법’의 지도에는 학습 내용의 전후 연속성과 영역 간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고, 감각적 탐색과 논리적 사고를 결합하도록 이끌어야 하며, 탐색과 사고를 통해 가지게 된 자신의 느낌과 생각, 상상한 바를 음악 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흥수 교수의 시각에서 음악원리를 개념 형태로 이해하는 것과 음악 실행방법을 터득하고 수행하는 것은 탐색과 비교, 사고, 기억, 연습으로 이루어지며, 음 현상의 감성적 탐구와 음악 규칙 및 원리에 관한 논리적 사고의 이행 여하와 수준이 학습의 성과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과 음형, 부분’의 ‘선택과 연결, 짜임’에 관한 탐구는 음 현상과 음악 양상을 귀로 구별하고 비교, 탐색하는 감각작용을 통한 학습이며, 음악 구성 및 소통의 원리에 관한 사고는 음향 상태를 관련 및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오성 작용을 통한 학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악교육에서 감성과 오성 어느 것도 생략해서는 안 되며, 탐구 및 사고의 절차와 과정은 학년의 수준에 적합도록 이끌어야 한다.

5. 음악의 원리와 성장 과정에 합당한 교육

1) 중점 요소 중심의 학습 내용 구성

이흥수 교수는 음악 경험과 음악학습은 따로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음악교육은 음악을 수용하고 표현하는 동시에 악곡의 생성과 소통의 기본 및 원리를 개념 형태로 이해하도록 하는 하나의 통합된 과정이다”로 보기 때문이다. 악곡의 음향적 이미지를 감각과 몸으로 수용하고 표현하는 동안에 교사의 발문과 설명에 따라 악곡의 내용과 음 현상, 구조를 탐색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면서 악곡의 성격과 의미, 구성과 형식, 음향 표현 및 소통의 원리 등을 이해하도록 이끄는 일인 것이다. 그러한 학습지도는 음악 교과 내용 체계를 ‘음악 경험요소와 음악 학습요소’로 구분 설정하는 것과 동시에 연계와 통합의 형태로 구성할 때 가능해진다.

또한, 그는 음악과의 경험요소는 ‘악곡 경험요소와 행위 경험요소’로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악곡을 통해 경험할 요소는 ‘의미(소재 요소)와 아름다움(질적 요소)과 소통(기능 요소)’이다. 따라서 음악교육 내용 체계에는 악곡의 소재에 근거한 의미를 포착하고, 의미를 지니는 음향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학생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될 요소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음악수업에서 학생이 요소를 의식하는 가운데 ‘내가 이 악곡으로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음악 행위를 할 때 학습 목표는 온전히 성취되고 학생의 내면은 진정으로 생동하게 된다.

그런 만큼, 이흥수 교수의 시각에서 음악 행위를 통해 경험할 요소는 ‘내면작용과 외적 행위’, 즉 개인의 감성적 내면작용과 그에 바탕을 둔 외적 행위이다. 요소들은 행동방식에 따라 ‘1차 내면작용: 느끼기, 생각하기, 상상하기’, ‘2차 내면작용: 수용하기, 통찰하기, 판단하기’, ‘외적 행위: 모방하기, 창작하기, 표현하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내용 체계에는 교사의 세심한 발문과 설명에 따라 학생이 이행하게 될 내면작용과 외적 행위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그는 수업에서 교사가 그러한 요소들을 의식하고 있을 때, 도입부에서 악곡의 소재나 내용에 대한 감성적 이입을 위해 적절하게 발문할 수 있고, 악곡의 의미와 미적 질을 ‘느끼고 생각하고 상상하도록’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나아가 그런 느낌과 생각과 상상에 따른 ‘수용과 통찰, 판단’을 바탕으로 ‘모방하거나 표현 또는 창작을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교재 악곡으로 진행되는 순차적 또는 동시적 내면작용과 외적 행위들이 내용 체계와 교사의 의도에 따라 계획되고, 학생이 내면 상태를 뚜렷하게 의식하는 가운데 음악 행위를 할 때, 교과당위에 합당한 음악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흥수 교수의 시각에서 음악과의 학습요소는 ‘기본 능력, 기초 기능, 악곡 생성원리, 수용 및 비평, 표현’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한 요소들은 학습방식에 따라 ‘음의 속성(길이, 높이, 크기, 음색 등)에 대한 감각 기르기와 악보 읽기 및 쓰기 방법의 습득(기본 능력)’, ‘교실 악기를 다루는 기초 기능의 습득(기초 기능)’, ‘악곡 구성 요소와 생성원리의 탐구 및 이해(악곡 생성원리)’, ‘악곡 감상 방법의 이해 및 실행(수용 및 비평)’, ‘연주 및 창작 방법의 이해 및 실행(표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음악교육 내용 체계에는 학생이 익히고 탐구하고 실행할 요소들이 종적 위계(학년별)와 횡적 연계(내용 영역별)에 따라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 만큼, 이흥수 교수의 시각을 고려하면, 수업에서 교사는 그러한 세부 요소들을 인식할 수 있을 때, 뚜렷한 목표의식 속에 합당한 내용과 방법을 선정해서 지도할 수 있다. 즉 교육 내용 체계에 따르면서 언제 어떤 감각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어느 단계에, 어떤 기능을, 어떤 방법으로 습득시켜야 할지를 교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악곡의 의미와 미적 질을 어떤 방법으로 느끼고 생각하면서 수용하고 통찰하도록 이끌 것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모방하게 하거나 표현, 창작하도록 이끌지를 교사가 계획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교육 내용 체계 속에 제시되는 학습요소는 교사에게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 지도할 수 있게 하고, 학생이 의식을 가지고 음악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 학습지도의 방법과 시기

이흥수 교수는 음악 지도에서 음 감각과 기능들을 갖추는 일에는 특히 적합한 학습시기와 절차, 연속성을 고려해야 하고, 음악원리와 실행방법을 개념 형태로 지도하는 데에는 이해하고 터득하게 할 내용의 연계적 지도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 음 감각과 악기 기초 기능을 충실하게 익히게 해야 한다. 음 감각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에 ‘음의 길이와 높이, 크기, 음색’들의 같음과 다름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갖추게 된다. 악기 기초 기능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에 박을 치기로 시작해서 리듬악기로 리듬 치기, 가락 타악기로 가락 치기, 건반악기와 리코더, 단소 익히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 악보 읽기는 초등학교 3, 4학년 시기에 반드시 지도해야 한다. 그 시기에 음 감각이 갖추어지고 논리적 사고가 시작되어 악보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악보를 보고 계이름으로 부르도록 이끌고, 건반악기나 리코더를 이용하여 악기 소리와 계이름으로 부르기를 연계하여 연습하도록 이끌어 주면 효과적이다. 계이름

으로 부르기는 음악을 이해하고 활동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 교육 내용 체계 속에 이러한 시기와 절차가 제시되지 않으면, 누구도 음 감각과 기초 기능 갖추기에 주목하지 않게 되어서 학생들은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고 그저 노래를 따라 부르며 성장기를 보내게 된다.

악곡 원리를 개념 형태로 이해하는 것과 음악 실행방법을 터득, 수행하는 것은 탐색과 비교, 사고, 기억, 연습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모든 학년의 수업을 전개하는 데에 주된 방식이 되며, 교사가 내용 체계에 따르는 가운데 적절한 경험 및 학습 내용과 합당한 탐구 및 연습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어떤 학습형태의 수업이든 교사는 도입부에 악곡이 만들어진 까닭(노랫말, 표제, 구성 의도)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의 경험과 관련된 의미를 느끼도록 이끌게 된다. 그리고 악곡의 음과 음형, 부분들이 어떤 소재, 어떤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선택되고 짜였는지를 생각하면서 악곡 생성 및 소통의 원리와 관련짓게 하며, 악곡에서 갖게 된 느낌과 생각을 자기 방식으로 표현하고 수용하도록 이끌게 된다. 이때, 감성작용을 통한 음 현상 탐구와 오성을 통한 음악 규칙 및 논리에 관한 사고의 이행 여부와 수준은 음악수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음과 음형, 부분의 선택과 연결, 배합, 짜임 등에 관해 탐구하는 일은 음의 길이와 높이, 크기, 음색 같은 현상들과 음을 다루는 양상을 귀로 구별하고 비교하고 탐색하는 감각적 이성작용이다. 그리고 악곡 생성과 소통의 원리에 관한 사고는 청각기관 의 감성작용으로 파악되는 음향 상태를 관련성 및 관계성 속에서 생각하는 오성 작용이다. 그러므로 “감성과 오성 작용 중 어느 것도 생략되어서는 안 되며, 탐색과 탐구의 절차와 과정은 반드시 학년의 수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이흥수 교수는 역설한다.

6.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포함할 만한 내용

을 12월에 고시 예정인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총론에 이흥수 교수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기를 권고한다.

- (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음악적 의도와 취향을 존중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수용하고 비평하기
- (나) 자기 성장과 자아실현을 위해 새로운 음악 창작 또는 연주 시도하기
- (다) 전통의 문화적 관행을 고려하되 새롭고 다양한 기법과 양식을 수용하고 참여하기
- (라) 지구의 온전한 보전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공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하는 음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활동에 참여하기

(마) 음악을 자신의 의지대로 정확하고 명료하게, 적절한 기교와 방법으로 표현하기

(바) 공동체를 위해 개별적으로 또는 협업으로 음악을 해석 설명하고, 연주를 계획
시연하며, 기록 평가하기

이는 교육과정의 총론에 기초로 한 것들로 지금의 개정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도 적용할만하다.

V. 나오는 말

이흥수 교수는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은 교과 교육의 본질화와
현대화, 체계화, 정교화의 과정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예술 교과로
서의 음악교육에 대한 인식을 갖추고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예술 음악 작품으로 의미
와 미적 질을 소통하는 경험과 음악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습을 제공한다면, 우리는
학생들이 이루는 진정한 감성적 성장과 행복을, 정신적 성취와 희열을 보게 될 것이
다. ‘학령기에 예술 음악을!’이라 강조하는 것은 비예술 음악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
라, 구별하자는 것이다. 즉 비예술 음악이 나쁘니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일생 중에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절호의 시기를 허송하지 않도록, 최소로 제한된 수업시간에만
이라도 되도록 더 좋은 음악, 가장 좋은 음악을 찾아 경험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음악 교과는 감성적 소통 경험과 오성의 탐구 학습으로 학생들의 가슴에 음악의
불씨를 담아주는 교과이다. 불씨는 시작을 뜻하는 동시에 완성을 뜻한다. 교사가 예술
음악 작품 속의 가치와 열망, 공감과 소통, 사랑과 희락, 균형과 조화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뜨겁게 불태울 때, 예술 음악의 불씨는 눈과 입, 표정과 몸짓을 통해
학생들의 가슴으로 옮겨질 것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학생의 삶 속에서 다시 타올라
아름다운 불꽃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가 그 진리를 증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였다.

음악교육계의 산 역사적 증인이자, 거목인 이흥수 교수는 아직도 왕성한 교육적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 대담하는 내내 본 연구자는 마치 칸트의 ‘정언 명령’강해를
듣는 듯하였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그의 교육적 시각은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의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참여와 직접적인 교육현장의 경험,
그리고 끊임없는 철학적 사유의 결과로 얻은 확고한 교육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각은 분명 현행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과 이후의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의 지계적 역할 뿐만 아니라, 학교 음악교육의 목적, 내용과 방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추는 하나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맛있는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저절로 달리는 것이 아니다. 그 시기와 방법을 잘 아는 농부의 지혜, 곧 땅을 일구어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잘 자라도록 김을 매고, 땀 흘려 수고함과 동시에, 밤낮으로 좋은 열매 결실하려는 농부의 염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자연의 이치가 이러하듯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은 개인의 미적 성장과 국가의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교육과정이어야 함을 다시금 유념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Chang, S. H. (1996). *The history of Korean music*. Seoul: Sekwangmusic.
- Ham, S. G. (2000). *Curriculum textbook*. Seoul: Korean Textbook.
- Ju, D. C., Kwon, S., Kim, G. S., Kim, M. S., Kim, S. M., Kim, S. Y., Kim, Y. M., Kim, Y. H., Kim, J. H., Min, K. H., Park, Y. J., Park, E. S., Park, J. C., Park, J. H., Bae, S. Y., Yang, J. M., Ryu, E. S., Yoon, M. J., Yoon, J. Y., Lee, K. W., Rhee, E., Rim, M. K., Lim, E. J., Jang, G. J., Cho, D. H., Cho, S. G., Choi, E. A., Choi, J. H., Hyun, K. S., & Hong, I. H. (2018). *Research trends in music education*. Seoul: Hakjisa.
- Kim, G. S. (2020). An interview with senior scholars in music education to shed light on the historical footsteps of the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9(2), 1-39.
- Kwon, D. C. (2004). 50 years of school music education: Its reflections and prospects: 50 years reflection on school education in 2004 and its outlook. *Korea Teachers' University Comprehensive Education Training Institute's Data Collection*, 580-611.
- Lee, H. S. (1990). *A modern approach to music education*. Seoul: Sekwangmusic.
- _____ (1992a). *Music education of feeling and insight*. Seoul: Sekwangmusic.
- _____ (1992b). *A music trip to find the meaning and beauty of music*. Seoul: Sekwangmusic.
- _____ (2004). A study on the 50 years of music curriculum in secondary schools - Focused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music curriculum. *Korea Teachers'*

- University Comprehensive Education Training Institute's Data Collection*, 624-668.
- _____ (2006). Society activities 50 years, self-reflection and assignment.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1, 1-7.
- _____ (2015). The justification and duty of a music subject. *2015 Korean Society for Music Education's Summer Conference's Data Collection*, 3-15.
- Lee, Y. M. (2020). The instructional strategies of play-songs according to music subject matter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9(4), 175-202.
- Lim, E. J. (2020). A study on the content system of arts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9(1), 175-203.
- Mark, M. L. (1992). *Contemporary music education*. Trans. Lee, H. S., Rim, M. K., Bang, K. J., Kim, M. S., & Jang K. B. Seoul: Sekwangmusic.
- Min, K. H., Kim, S. Y., Kim, Y. H., Bang, K. J., Yang, J. M., Seung, Y. H., Yang, J. M., Lee, Y. K., Rim, M. K., Jang, K. B., Cho, S. I., Ju, D. C., & Hyun, K. S. (2010). *Introduction to music education*. Seoul: Hakjisa.
- Ministry of Education (2001). *Human resources development, music curriculum standards*. Seoul: Sinilmunhwasa.
- Park, J. H., & Kim, J. H. (2021a). Exploring the composition of new music curriculum according to the direction(draft) of the next national curriculum in 2022.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3), 57-77.
- _____ (2021b). Comparative analysis of music curriculum: Focusing on USA,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Singapore, Germany, France, and Finland.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4), 71-92.
- Rousseau, J. (2009). *Emile ou de l'education Emile or on education*. Trans. Kim, J. H., Seoul: Hangilsa.
- Ryu, D. H. (1983). *World music education history*. Seoul: Hakmunsa.